

buddhanews.com

# 모든 게 나로 인해 생겼으니 내 주인공에 다 맡겨놔야

## 25면에서 계속

쪼. 병이 낫어도 '아! 거기서 병이 난 거니까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어.'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아!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 거니까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지.' 하고 맡겨 놓는 겁니다. 일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법이 일심에서 나오 일심으로 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일체 놓을 수 있다면, 맡겨 놓고 작용을 거기에서 함이 없이 한다면 내고 들어오는 것도 둘이 아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데 모든 업이 무너지고 숨이 떨어지고 나를 발견하고, 이 세 가지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타나면 내가 남과 둘이 아닌 도리를, 일체 둘이 아남을 알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또 놓고, 그때는 실험으로 들어갑니다.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자기가 주저함이 없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목마르면 그냥 물 마실 수 있는, 똥마려우면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똥 볼 수 있는, 졸리면 그냥 잘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자도 일어나도 앉아도, 하다못해 똥을 누러 가도 자기가 거기 갔으니까 부처가 있고 도량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 집을 오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분일 수도 있는데다가 오신통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또 지수화풍으로 동처졌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아주 재료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우물쭈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빙빙빙빙 둘러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팔정도나 이렇고 육바라밀은 이렇고 심판심소연식은 이렇고, 이것을 일일이 따진다면 언제 나를 발견하고 언제 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었습니까? 몸이 떨어지기 전에 열반을 하고 그 도리를 알아야지, 몸이 떨어지고 나면 무슨 부딪침이 있다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해가 있으면 내면이 있듯이, 내가 지금 그 도리를 안다면 내면에도 스스로, 세세생생 스스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이거죠. 오늘 이 세상에 나왔으면 오늘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세번째, 우리가 둘이 아닌 도리를 발견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지혜죠. 체험하고 실험하고 또 체험하고 이러면서 인간으로부터 모든 쫓아무나 무정물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이지만 말입니다. 인간이 제일 으뜸가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저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둘이 아니죠. 모두가 같이 둘이 아니게 통신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도

법망이 있고 공중에도 법망이 있고, 어떤 욕성이든지 법망이 있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세포도 법망입니다. 세포가 없다면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고 안에서 세균이 막 퍼붓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제재를 하고 막으니까? 세포가 바로 그 법망에 속하죠. 그래서 '법망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실험해서 체험한 뒤에는 다시금 지혜를 내서 또 놓는단 말입니다. 또 봐요. 놓아 가면서, 거기에서 맡겨 놓아 가면서 둘이 아니게 나뉘는 알아야 된단 얘깁니다. 이런 기준 방식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꼭 이걸 알고 가야만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냥 걸어안 안 된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백팔 배를 줄여서 일 배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까. 백팔 배가 일 배가 될 수도 있고 삼천 배가 일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시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면 꼭 삼 배를 해야 하고 꼭 백팔 배를 해야 하고 삼천 배를 해야 하지만, 한데 뭉쳐서 일 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다. 고 하는 뜻은 현재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연방 애들이 태어나고 늙어서 죽고 이러는 것을 보세요. 부처님 말씀이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되고 있던 얘깁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계셨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뉘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시면서 금방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하면 "그래, 어디 갔다 왔니?" 하고 할아버지가 돼요. 한 사람이 몇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까? 남편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형님도 되고 아우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 앞에 이름을 몇 가지나 가지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방 자식이 와서 "아버지!" 하니까 "응" 하면서 그 마음이 금방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말도 행동도 그냥 아버지죠. 그랬는데 아내가 들어오면서 "여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뉴욕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군요. "먹기 위해서 샀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하고 간단하게 말을 해요. 물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신 큰스님 같은 이럴 때 말을 했을 겁니다. "시원한 물이나 한 그릇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해도 좋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무척 더웠습니다. "택이 여기 더운 데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주 목이 마르고 더워서 죽겠다면,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따라서 벌컥벌컥 들이키고 난 뒤에야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있는 거지 목이 말라 죽겠어서 물 마실 때에 '살기 위해서 먹나, 먹기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었대요. 허허, "똥이 급하게 마려운데 생각을 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그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법에서 한 찰나에 자기를, 자기 몸뚱이

나라도 내가 마구니를 건지려면 마구니 속으로 들어가야만 마구니를 건질 수가 있기에 그 또한 둘이 아니다. 바로 나인 것이다. 수억급 광년을 거쳐 나올 때에 얼마나 쫓기고 쫓으면서, 살 양으로 발버둥치면서 진화가 됐던가. 그렇다면 그 피나는 세월을 겪어야 겪어 온 우리들의 지혜로운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고 뜻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또한 지역도 발전이 될 것이며 뿌리를 지킬 것이며 또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선맥이, 저 물이 끝없이 깊이 흘러가듯 맥이 흐를 게 아닙니까?

이 세상의 나무들이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듯이, 인간 몸이 떨어지는 게 잎 떨어지는 거와 한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양당하게 가지만 남아서 그 추운 겨울에 출근 눈을 맞아 가면서 바람에 치어 가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나무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이 지역에서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생활, 자유스러운 생활, 또는 봄이 오게끔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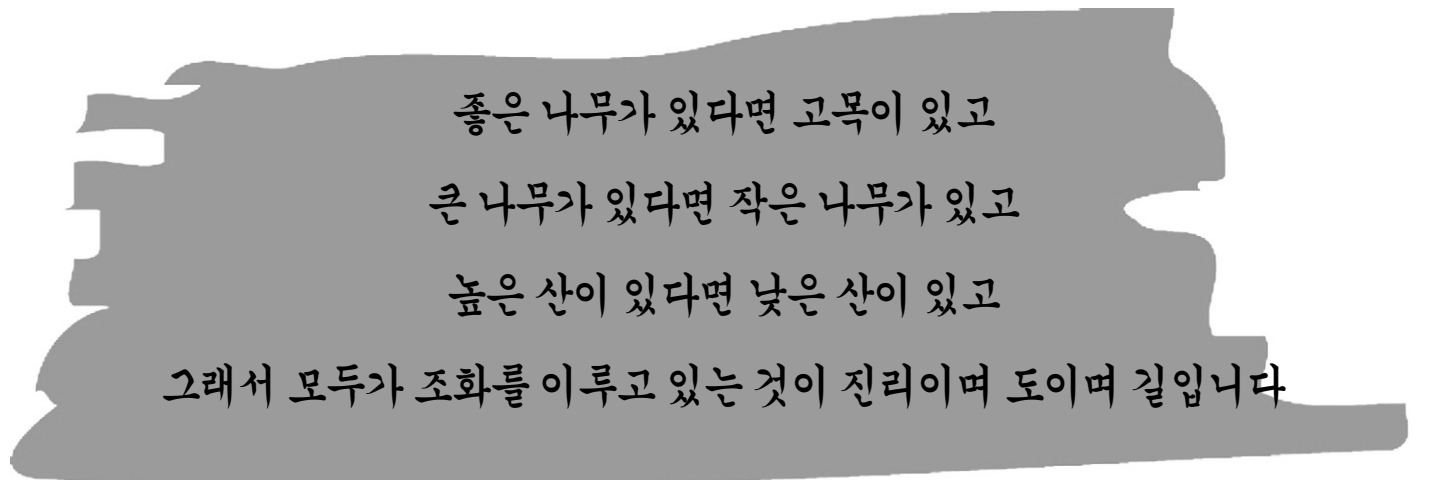
그러면 그 열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열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알아서 머리에서 내놓고 바로 꺼내 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고 이론이 아니죠. 경을 이리 꿰고 저리 꿰고 아무리 꿰 맞추고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그것은 강설이지 바로 법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열반이 아니라, 나뉘어라는 이름이 나뉘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방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생활에다가 비유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불가사의한 법이, 묘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법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인공에 그 모든 것을 놓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를 발견해 놓고서 그때부터 실험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 다른 국토에서, 즉 다른 욕성에서 내 집으로 찰나에 들었다가 찰나에 나고 합니다. 그건 왜? 둘이 아닌 까닭이죠. 예를 들어서 달세제나 태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더라도 내가 태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태양을 나한테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9년 11월 1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신문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와 더불어 전체 근본의 그 진리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어느 것 하나 나 아닌 게 없고 내 손 아닌 게 없고, 디디면 평방이 되고, 내 아님 아남이 없고 내 형제 아남이 없고 내 부모 아남이 없고 내 자식 아남이 없다 이 소립니다. 나뉘어라는 거, 오기 말하기 전에 한마디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실 때에 해골 무더기를 보고 큰절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그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한말 스님한테 그 소리를 한마디 듣고 이렇게 생각했죠. '아! 참, 그 한마디가 우주 천하 삼천대천세계를 포괄해서 대변하는구나.' 왜? 시공이 없어서 걸림이 없는 도리도 거기에 있고, 진화가 돼서 오늘 어저께가 따로 없고 삼세가 따로 없고 삼심이 따로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고 현재도 따로 없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해골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보!' 하고 들어오거든요. 금방 아버지가 됐던 그 사람은 그냥 찰나에 변해서 남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여보, 왜 늦게 들어왔어?" 하면서 당당한 남편 구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뉘어입니다. 찰나고요.

그래서 나뉘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나뉘어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생들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들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들이나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나 화타지옥, 오간지옥에 있는 중생들, 즉 말하자면 현재의 중생들을 전부 한데 합쳐서 모두 응해 주시고 모두 받아들여 안아서 녹여 주시면서 내가 그 가 될 수 있고 그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바로 그런 분을, 어떠한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대도를 통달하신 그런 분을 바로, 그것도 이름해서 열반에, 아능다라삼막삼보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그렇게 하느냐? 그 이름이

를 구멍이에 넣을 수도 있고 한 찰나에 구멍이에 서 빼낼 수도 있는 게 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에서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찰나 생활, 나그네 생활입니다. 크게 생각하면 나그네 생활, 또 우리 지금 현재로 생각한다면 찰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찰나 찰나에 묶여져서 그대로 있습니까? 고정되게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 서도 "모두가 공했느니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 아니라, 마음조차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고정되게 듣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먹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보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 공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생활에서 독특하게 알아야겠다는 얘깁니다. 우리를 떠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남이 못하더라도 내가 전에 몰라서 못할 때 모습으로 바라. 남이 마구

###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중정무진본정화당 총무원장 해봉당 무공

불교(佛祖)의 해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계종통합(諸宗統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 분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제1회 장애인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대법회

대한불교선교종 경남 총무원에서는 창종이념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하여 경남 밀양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장애1급, 2급),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1회 장애인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법회를 아래와 같이하고자 합니다.

이웃과 함께 훈훈한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대한불교선교종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근본이념의 덕목을 삼고 실천행군하며 자비를 베푸는 대한불교선교종 경남 총무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법회일시 : 불기 2553년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 법회장소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8-9번지 대한불교선교종 경남 총무원
- 대상자 : 밀양시 거주자 1급, 2급 장애인

대한불교선교종 경남총무원 각 교구 스님 및 교인 일동 대한불교선교종 경남 총무원장 법우 합장

문의 : 055)352-3186, 354-1357

###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대한불교조계종 청강사 해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0-9506-5706